

# 孫一奎의 生涯와 學術思想에 관한 研究

강현호·尹暢烈\*

## I. 緒 論

韓醫學은 독특한 理論과 治法으로 오랫동안 人類의 健康을 지켜왔으며, 오늘날에 와서도 끊임없는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韓醫學에서는 예로부터 많은 醫學流波가 있었으며, 그런 醫學流波間의 끊임없는 論爭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다. 醫學流波의 形成을 보면 西漢以前에 이미 醫經七家와 經方十一家의 醫賊들이 있어서 基礎理論과 臨床醫學이 初步적으로 區分되기 시작하였으나 진정한 醫學流波가 形成되기 시작한 時期는 金元時代라고 할 수 있다. 金元時代는 宋·金·元이 서로 대치하여 政治적으로나 社會적으로 昏亂한 時期였으며 百姓들이 戰禍에 시달려 流浪生活을 계속하여 熱性傳染病이 많이 流行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傳染病으로 죽어 갔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의 요구에 따라 流行性傳染病을 治療하는 醫術이 절실히 요구되었는데 이 때 성립된 醫學流波가 바로 金元四大家로 劉河間은 主清火하고 張子和는 主汗吐下하고 李東垣은 重脾胃하고 朱丹溪는 重滋陰하여 각각 門戶를 세워 後人들을 啓悟하였는데<sup>1)</sup> 이를 《四庫全書提要·醫家類》에서는 “儒之門戶 分於宋醫之門戶 分於金元”이라 표현하였고, 또한 “河間之學與易水之學爭 丹溪之學與宣和局方之學爭”<sup>2)</sup>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韓醫學이 이들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면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sup>3)</sup>.

明代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時代적인 背景下에 薛己를 대표로 하는 溫補學波가 점차적으로 주도

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는데 거기에는 薛己, 張介賓, 趙獻可, 孫一奎 등의 醫家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溫補學派를 대표할만한 인물로 明代의 孫一奎를 들 수가 있는데, 그는 臨床에서 命門과 三焦의 關係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醫學理論을 형성하여 溫補學派는 물론이고 後世의 다른 醫學流波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孫一奎는 疾病을 治療함에 있어서 寒涼한 藥物을 適用하는 데서 오는 弊端을 바로잡고 溫補之劑를 사용하여 命門陽氣를 保護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三焦와 心包絡을 연구하여 相火의 개념을 세웠다.

이에 著者는 三焦와 命門의 關係에 대한 孫一奎의 독창적인 견해를 밝히고, 溫補學派의 理論을 확립한 孫一奎에 대하여 生涯와 醫學思想을 《赤水玄珠》와 《醫旨緒余》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얻은 바를 報告하는 바이다.

## II. 生涯 및 著書

### 1. 生涯

孫一奎는 字는 文垣이요 號는 東宿이며 別號는 生生子로 安徽休寧 出生이고 明代 嘉靖萬歷年間(서기 1522~1619年)에 活動하였다.

孫一奎는 幼年時에 남달리 聰明하여 《易經》을 배울 때 訓長이 잠깐씩 지적하여 가르쳤는데도 그 大義를 명백하게 깨달아서 스승이 그의 타고난 資質에 놀랄 정도였다.

그 後 孫一奎는 儒學을 공부하여 자못 얻은 바가 많았지만 그의 아버지대에 각고의 노력으로 공부하기를 “體疲慮而弱益甚”하여 벼슬길에 올랐다가 물러나는 것을 보고 훌륭한 관리가 되기보다는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1) 劉伯驥, 中國醫學史, 臺灣, 華岡出版部, 1974, p.5.

2) 蔡陸仙, 中國醫學匯海 卷八, 서울, 成輔社, 1976, pp.76~77.

3) 尹暢烈,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金元時代醫學의 學術的 特徵, pp.3~4.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조금 커서는 括蒼(지금의 浙江省 麗水 東南쪽)에 사는 兄을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異人으로부터 禁方書를 傳授받아 읽고나서 깨달은 바가 매우 많았고 臨床에서의 효과도 매우 높았기에 故鄉으로 돌아와서 儒學의 공부를 그만 두고 醫學만을 공부하였다. 그 후에는 王石山의 弟子인 黃古潭先生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였다. 古潭先生은 治病에 있어서 항상 독특한 見解를 가지고 臨하였고, 孫一奎는 難治라고 생각되는 症候가 있으면 脈象을 가지고서 스승께 가르침을 請하여서 이로 인해 臨床診療方面에서 받은 은혜가 적지 않았다.

처음으로 醫學을 공부할 때에 孫一奎는 위로는 軒岐로부터 아래로는 古今名家에 이르기까지의 醫籍을 집중적으로 열심히 읽었는데 읽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렇게 공부한지 3年後에 그는 “索居而闕觀”이 “廣詢而遠覽”만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래서 故鄉을 떠나 멀리 돌아다니며 스승을 찾아 學問을 구했다. 그 발자취는 湖南省과 江西省 등의 江南에 두루 散在해 있다. 무릇 明徹한 人士를 만나면 그 앞에 몸을 굽혀 醫理를 探求하였다. 또 30年동안의 勤求博采와 刻苦의 研究로 그의 術業은 이미 非常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로써 그의 醫名이 세상에 자자해지고 高官名士들이 앞다투어 그와 往來하였다. 그는 틈틈이 《醫旨緒余》2卷, 《赤水玄珠》30卷과 《孫文垣醫案》5卷을 著述하고 後에 이것들을 모두 합하여 《赤水玄珠全集》으로 稱하였으니 이것은 醫學界의 後學들에게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2. 著書

《赤水玄珠全集》, 一名 《孫氏醫書三種》은 서기 1584年(明나라 萬曆 甲申年)에 처음으로 刊行되었다.

‘赤水玄珠’란 이름은 象罔이 구슬을 얻었다는 故事에서 取했다. 《莊子·天地》에 “黃帝遊乎赤水之北 登乎昆侖之丘 而南望不歸 遺其玄珠. 使知(智)索之而不得 使離朱索之而不得 使喫詬索之而不得也.

乃使象罔 象罔得之.”라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象罔은 架空人物로서 罔象이라고도 하는데 그 意味는 形象이 있는 듯하면서도 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無心한 상태를 이르는 것이니 無心하므로 능히 홀로 玄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赤水玄珠全集》은 孫一奎의 3種醫書를 編輯한 것이다.

### 1) 《赤水玄珠》30卷

本書는 明證을 爲主로 하였고 內科·婦人科·小兒科·外科 등 各科病症의 原因·病症·治療를 論述하고 있다. 먼저 《內經》의 論說를 첫머리에 두고 계속해서 古今의 諸名家들이 辨治經驗한 것을 적고 孫一奎의 見解를 간략하게 附記하고나서 마지막에는 治法과 方藥을 기록하고 있다. 全書를 70餘門으로 分립하고 各門을 다시 하나하나 구별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는데, 예를 들면 風門을 傷風·類中風·眞中風·瘧疾 등으로 나누었고, 寒門을 中寒·惡寒 등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引用된 各種文獻은 265種에 이른다.

書中에서 ‘寒熱·虛實·表裏·氣血’의 8介字로 辨證原則을 삼았고, 各種病症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고 빠짐없이 討論하였으며,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는 태도가 분명하다. 先賢의 遺著에 대해서는 臨床實際에 符合하는 것에 대해서 辨治의 指導作用이 있는 것이면 받아들여 상세히 記述하고 古今名家의 著述中에서 偏頗的인 것에 대해서는 항상 後學들에게 警戒心을 일깨워 執評에 있어서는 公平하고 不爲長者·名者晦. 列舉된 方藥 역시 비교적 實用的이다. 이 冊이 論病하는 것은 溯源注流하고 渾然一體하고 거기다가 間附한 자신의 견해는 畫龍點睛한 붓과 같아서 이를 읽는 者를 능히 啓發시켰으니 이로써 後世에 존경을 받는 이가 되었다. 단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惟第十卷·祛損勞瘵門 附‘方外還丹’ 專講以人補人采煉之法 殊非正道”<sup>4)</sup>라고 하면서 “遂爲全書之大瑕”<sup>5)</sup>라고 지적었는데, 孫一奎의 醫術이 公卿間에 널리 퍼져있었

4)中國醫學大系 34卷·赤水玄珠·提要, 서울, 麗江出版社, 1987, p.1.

5)中國醫學大系 34卷·赤水玄珠·提要, 서울, 麗江出版社, 1987, p.1.

으므로 실지 그 藥을 즐겨 투여했다면 이 冊에 있어서의 흠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 2) 《醫旨緒余》2卷

本書는 비록 ‘緒余’라고 稱했지만 사실은 孫一奎가 평생 學問한 結果物이다. 本書는 上下卷으로 나누어져 있고 70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孫一奎의 醫論專輯이다. 이 외에도 古今醫家の 精論과 《靈樞》의 經文數篇을 抄錄하였다. 書中の 立論은 《內經》과 《難經》을 宗主로 하였고, 《易經》과 理(宋明理氣의 學問)을 參考로 하여서 臟腑經絡의 形質機能과 病症의 診治를 爲主로 論하였으며 《難經》에 관한 研究를 더욱 深度있게 하였다. 醫論中 命門·相火에 관한 闡述은 前人이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표현한 것으로 後世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三焦를 論하면서 《內經》과 《難經》을 宗主로 삼고 諸賢의 ‘三焦有形之說’을 반박하면서 條理가 분명하고 說得力이 強했다. 古今의 病症을 辨別한 것은 오늘날 經驗해보아도 역시 그러할 정도로 정확하다. 人身의 內景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記述하여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을 정도이다. 下卷의 ‘不執方說’과 ‘六名師小傳’은 모두 자손대대로 傳해진 것을 篇한 것으로 前者는 ‘妙悟心法’을 創發하여 古方에 구애받지 말 것을, 後者는 諸名家의 長短과 功過에 대한 公正한 評論을 적은 것이다. 書中에 抄錄한 先賢의 遺訓은 가히 精髓라 할 만하다. 그의 簇子인 孫元素는 “遠宗之正 近取之周 考核之精 謙衝之度 一集而四善具焉”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실지 지나친 칭찬이 아니다.

### 3) 《孫氏醫案》5卷

一名 《孫氏醫案》이라 하고, 그의 門下인 余煌·徐景奇와 그 子弟인 泰來·明來가 編輯한 것이다. 《醫案》以行醫地名命集, 診治한 時間을 順序로 하였으며, 《三吳治驗》2卷, 《新都治驗》2卷과 《宜興治驗》1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醫案이 400例 가까이 수록되어 있다.

《孫氏醫案》素爲後世醫家稱道, 뛰어난 辨治記錄이 매우 많아 자못 法으로 삼을 만하다. 비록 痢疾·痰火·虛勞·熱病·痺證·痿證 등의 案例가 수없이 많지만 治療方藥에 있어서 雷同한 것은 없어서 同

病이라도 異治하는 原則을 직접 충분히 느낄 수 있고 讀來各案案皆有收益. 用藥規律上에서는 丹溪를 師承한 一脈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案中에는 醫論과 證治를 闡發한 것이 많아서 醫者의 證治方向을 理解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傍文多於正論 亦爲冗漫 蓋大意主於標榜醫名 而不主於發揮醫理”라하여 잘못하여 極端的이 될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이 외에 또한 孫一奎는 《痘疹心印》2卷을 지었는데 “節錄各家成法 參以己意 會而同之”<sup>6)</sup>이라 하였다. 이 冊이 지어진 時期는 明代 萬歷間 丁酉年(서기 1597년)으로 後에 《赤水玄珠》中에 插入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痘疹門’이다. 이 부분의 내용은 오늘날 臨床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赤水玄珠》는 明證과 論治를 爲主로 하고, 《醫旨緒余》는 醫論을 爲主로 하여 두 著書는 各기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다. 或者는 《醫旨緒余》가 《赤水玄珠》의 續篇이라고 하지만 實은 《醫旨緒余》가 먼저 著述되었다. 그렇게 보는 根據는 다음과 같다.

① 《赤水玄珠》의 羅浮道人序를 보면 “生平不妄交與 在家惟註方言. 有《醫旨緒余》數百言 率皆辨衆論以歸於中 明先天太極之道 發前賢證候之秘. 又於先世所未名之疾 未有之方 爲之補其闕而增其所未盡 …… 書成 請題於余 余曰; ……名之曰‘赤水玄珠’ 不亦宜乎!”<sup>7)</sup>라 하였고, 또 “……出所著《醫指》示余 鑿鑿乎發前人所未發 補前書所未盡 益大奇之. 生曰; 此緒餘也 有全集三十卷(30卷이라 한 것으로 보아 《赤水玄珠》의 卷數로 지금의 《全集》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未授劊劊 ……”<sup>8)</sup>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의지서여》가 사람들에게 일하고 있을 당시에도 《적수현주》는 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두 著書의 내용을 분석할 때 《醫旨緒余》의 ‘明證’에 관련된 論述이 《赤水玄珠》에서 중복되는 곳이 있다. 더군다나 《醫旨緒余·痢與滯下辨》과 《赤水玄珠·泄痢辨》을 비교하여 보면 ‘痢’에

6)孫一奎 著, 赤水玄珠, 서울, 醫聖堂, 1993, p.1004.

7)孫一奎 著, 赤水玄珠, 서울, 醫聖堂, 1993, p.3.

8)孫一奎 著, 赤水玄珠, 서울, 醫聖堂, 1993, p.3.

관한 개념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赤水玄珠》에서는 “(泄與痢)初未敢遽分”이라 하였으니 당연한 도리로 《醫旨緒余》中에서도泄과痢가 구분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醫旨緒余》가 앞서 著述되었다는 증거이다.

이 冊을 읽을 때 만약 두 著書中에 矛盾되는 곳에서는 그 著述된 前後順序가 중요한 참고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後에 나온 議論이 보다 더 成熟된 것임은 당연하다.

《赤水玄珠全集》의 現存하는 주요한 版本은 다음과 같다.<sup>9)</sup>

明代 萬曆12年(1584年) 甲申刻本

明代 萬曆24年(1596年) 丙申刻本

日本 明曆3年(1657年) 風月堂莊左衛門刊本(36卷 醫案13卷)

日本 萬治3年(1660年) 刻本

明末 古欽黃鼎刻本(속표지에 《赤水元珠》라고 되어 있고, 康熙以後의 印本으로 알려져 있으나 或은 康熙年間に 翻刻한 明刊本이라고도 한다)

四庫全書本(文津閣本과 文溯閣本이 있다)

清代 東佛鎮天寶刻本

1914年 上海著易堂書局 活字本

1931年 浙江省 東草堂以鉛印本貼石復印本

### Ⅲ. 師承 關係

孫一奎가 儒業을 버리고 方術을 行한 이후 비록 홀로 책을 통해 연구하여 “古今名家 靡不翻閱”함에 出而廣詢한 則“近而丘里鄉國之士靡不咨 遠而江淮河之險靡不蹈”하여 門戶에 구애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장점을 兼采하였지만 그 學術思想의 主流를 살펴보면 金의 劉完素와 朱震亨의 學術思想의 영향을 받았음을 회미하게나마 알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젊은 시절 醫學을 공부했던 師承과 관련이 있다.

孫一奎는 일찍이 徽州夥人 黃古潭先生에게서 배웠다. 黃古潭은 汪石山の 弟子이며 汪石山은 朱震

亨(丹溪)의 再傳弟子이다. 또 朱丹溪는 羅知悌에게서 劉守眞의 學問을 전수받았다. 封建時代에는 老師가 學生을 선택하여 반드시 엄격한 考察을 거친 後에야 비로소 그 學問을 다 傳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醫學의 授受는 이보다 더하여 朱丹溪는 그의 나이 44歲에 이미 醫名이 있었으나 羅知悌를 往拜하여 “蒙叱罵五七次 趙趙三關月 始得講接”<sup>10)</sup>하였으며 “翁(丹溪)即得見. 遂北面再拜而謁受其所教”하였다. 羅知悌는 마침내 “授以劉張李諸書 爲之敷揚三家之旨而一斷於經”하였다. 二年을 공부한 後에야 朱丹溪는 드디어 “盡得其學以歸”<sup>11)</sup>하였다. 이러한 嚴肅한 師承關係로 인해 才能在門人無几의 情況下, 그 學術經驗이 계속해서 後代로 내려올 수 있었다. 위로는 劉完素로부터 아래로 孫一奎에 이르기까지 代代로 師生이 相授하는 이러한 기간이 數百年 持續되는 동안 河間의 學說이 廣大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하나의 매우 중요한 學術分枝가 출현하였으니 그들이 바로 丹溪學派이다.

劉河間이 ‘火熱論’을 주장하고 丹溪가 ‘陰常不足 陽常有餘’를 받든 것은 그들이 처해있던 서로 다른 社會環境과 관계가 깊다. 河間이 생활하던 시기는 金과 宋이 南北으로 대치하여 戰亂으로 슬렁이던 시기로 熱病이 中原에 流行하였던 까닭에 寒涼之劑로 그 有餘함을 攻伐하여야만 효과가 있었다. 南方에 있던 丹溪는 “生當承平 見人多酗酒從欲 精竭火熾 復用剛劑以至於斃 因此爲此救時之說”<sup>12)</sup>이라 하였다. 孫一奎의 이러한 師承支脈의 特徵은 劉河間의 一代弟子인 荊山浮屠師가 “來江南 始傳太無羅知悌於杭”<sup>13)</sup>하여서 有義鳥之朱丹溪. 以後 諸代弟子들은 浙江省에서부터 安徽省에까지 퍼져 진출하였다. 《孫氏醫案》의 用藥特徵을 분석해보면 孫一奎가 丹溪의 辨治心法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게 되는데 그 中 濕熱과 痰火 등의

10) 格治餘論

11) 丹溪翁傳

12) 朱彥脩 : 中國醫學大系, 格治餘論, 서울, 麗江出版社, 1987, p.637.

13) 朱彥脩 : 中國醫學大系, 格治餘論, 서울, 麗江出版社, 1987, p.628.

9) 위자魏子孝 編著, 倡命門太極說的孫一奎, p. 5.

證을 治療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의 《醫案》중에서 그 두 種類의 證例를 기록한 것이 가장 많은데 또 使用한 方藥에 있어서는 丹溪의 범주를 벗어나는 例가 거의 없다. 비록 《赤水玄珠·痺門》에서 그는 丹溪가 痺證을 '痛風'이라고 한 誤謬를 비난했지만 “以今之患痛痺者歷之 每每如丹溪 無擇所論”<sup>14)</sup>이라 하였고, 그 治法과 治驗도 “畢錄之以爲法”<sup>15)</sup>이라 하였다. 《孫氏醫案》중에 痺證의 案例를 보아도 丹溪를 본받은 것이 많다. 이러한 情況으로 보아 孫一奎가 어떤 學術問題에 있어서는 丹溪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또한 丹溪의 學問이 그에게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도 없다.

#### IV. 醫學 思想

##### 1. 學術思想의 時代背景

蒙古貴族의 殘暴한 統治를 顛覆시키고 건립된 明王朝以後에는 民族矛盾이 緩解되면서 社會가 비교적 안정되었다. 明나라 政權의 支持와 激勵속에 全國의 農業生産이 매우 빨리 恢復과 發展을 이루고 市場의 手工業과 商業 또한 繁昌하게 되었다. 明代 中葉以後 商品經濟가 상당한 정도의 發展을 이루면서 資本主義의 萌芽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趨勢는 醫學發展을 促進하는 계기가 되었다.

明代는 醫學上 造詣가 깊은 人物이 수없이 많았으며 一部醫家は 韓醫學史上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좀 더 분석해보면 그 分布上에 두가지 特徵이 있으니 地域의으로는 江蘇省, 浙江省, 그리고 安徽省에 集中해 있었다는 것과 時期的으로는 明代 中期와 後期에 集中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趨勢가 形成된 것은 결코 偶然이 아니다. 江蘇省과 浙江省이 그 당시 높은 科學技術의 基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외에도 明代 行政區域의 區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明王朝는

처음에 南京에 都邑을 정했다가 後에 北平(지금의 北京)으로 遷都한 까닭에 南京과 北平地區에 南北兩直隸가 設置되었고 外廓에는 13個의 布政司가 設置되어서 全國의 行政區域을 가지고 있었다. 社會의 名士는 兩直司周圍에 몰려 들어서 이 두 곳이 經濟와 文化의 中心이 되었다. 南直隸는 安徽省과 江蘇省을 포함하였는데 南京은 그 當時에 世界에서 가장 큰 都市로 인정되어 있었고 手工業이 상당히 發展하여 있었으며 특히 紡織, 印刷과 造船業에서는 더욱 發達되어 있었다. 全世界에 名聲이 높은 《永樂大典》도 南京에서 編纂된 것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당시의 南直隸에는 科學技術과 文化가 發展하기에 가장 적합한 基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明代의 科學制度는 한동안 盛行하였으나 嘉靖以後에는 朝廷의 奸臣輩들이 어진 이들이 官職에 오를 기회를 차단하였다. 이러한 朝廷의 腐敗는 많은 知識人들로 하여금 朝廷에서 등을 돌리게 하였고, 이로 인해 官職을 버리고 醫學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으나 이들 중 境地에 이른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孫一奎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 것이다.

嘉靖萬歷年間에 살았던 孫一奎는 어려서 先輩들이 “制藝過苦 又屢上棘圍 罷歸 不無怏怏”<sup>16)</sup>함을 보고 항상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社會的 悲劇이 그가 나중에 “舍儒業而事方術”했던 原因의 하나이기도 했다.

##### 2. 學術思想의 歷史淵源

歷史上 哲學界에서 일어난 한 번의 論爭과 發展은 항상 自然科學의 各分野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 宋元以後에 醫學理論의 發展은 아주 빠르게 進行되었고 學問 霧圍氣는 매우 活氣를 띄었는데 이것은 社會各分野에 스며들어 있던 理學思想의 出現과 系統化와 매우 큰 관계가 있었다.

宋儒에서 이름높았던 理學은 唯心論的 哲學思想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理學이 自然科學에 스며드는 과정중 理學 자체에도 본질적인 변화가 있

14)孫一奎 著, 赤水玄珠, 서울, 醫聖堂, 1993, p.512.

15)孫一奎 著, 赤水玄珠, 서울, 醫聖堂, 1993, p.512.

16)孫一奎 著, 赤水玄珠, 서울, 醫聖堂, 1993, p.13.

었다. 醫學界에서는 비록 理學이 醫學理論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同時에 理學中에 일부 적기는 하지만 唯物論的 思想이 배어들기도 했다. 이렇게 변화된 理學은 醫學理論과 實踐의 科程中에 障礙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醫學理論과 實踐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지 '太極圖說'만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기로 하자.

周敦頤의 《太極圖說》은 理學家에 있어서 중요한 研究手段이다. 宋代以後에 醫學家에서 醫學理論에 대해 연구할 때도 太極之說에 근본을 두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趨勢는 明清代에 가장 성행하였다. 그러나 醫學自體는 實踐을 重視하여 왔기 때문에 醫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傷寒論》과 金元諸醫家들의 理論發明은 모두 臨床實踐의 결과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醫學家들이 인식하여 太極의 이치를 固定된 法則으로 간주되어 醫學實踐에 있어서는 전혀 指導役割을 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醫家들은 太極之說을 해석할 때 萬物의 變化와 運動이 '氣化'에 根源을 두고 있으며 '氣'는 運動變化의 物質的 基礎가 되어서 "天地間非氣不運"이라고 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따라서 "理氣相合而不相離"라는 原則을 運用하면서 '理'가 모든 說法을 결정한다는 理學의 理論을 모면할 수 있었다. 當然也應當看到, 完全한 離脫은 당시의 哲學思想의 環境下에서는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孫一奎가 '命門—太極說'을 주장한 것은 理學을 重視한 전형적인 예이다. 그는 命門이 兩腎間의 動氣로 非水非火이며 造化之樞紐이고 陰陽變化의 根蒂라고 인식<sup>17)</sup>하였는데 이는 모두 太極說을 따른 것이다.

### 3. 基本學術思想

#### 1) 儒理를 崇尚하고 釋道를 兼采함

孫一奎는 劉河間과 朱丹溪를 師承한 一脈으로 丹溪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治學上에 있어서는 宋儒의 理學思想方法이 反映되어 井有所發

揮.

丹溪는 醫學을 배우기 前에 일찍이 元代의 著名한 理學家인 許文懿에게서 朱子學을 배워서 그의 理學素養은 매우 깊었고 따라서 이것은 丹溪學說의 形成에 思想基礎를 다지는데 이바지하였다. 《格治餘論》은 丹溪의 主要理論著書인데 그 核心은 '陰常不足陽常有餘'과 '相火論'이다. 丹溪는 闡述하는 科程中 理學的 觀點을 根據로 삼은 것이 많았다. 이러한 理學과 醫學이 서로 結合된 思想은 당시의 醫學理論發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原因을 분석해보면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醫學에서 採用한 理氣學이 이미 宋儒에서 主張한 理學과는 本質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 中の 素朴한 唯物論的 思想이 이미 醫學이 實踐되는 과정中에 충분히 받아들여 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陰陽學說과 五行學說이 하나로 結合되어 系統化되는 趨勢가 일어나면서 後世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孫一奎는 이러한 趨勢를 적극적으로 普及한 인물이다.

太極圖는 理學家에게는 중요한 推理手段인데 孫一奎의 主要理論著作인 《醫旨緒余》太極之理를 開宗便言한 것이다.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天地萬物本爲一體. 所謂一體者 太極之理在焉." 이라 하여 太極이 天地萬物의 運動과 變化規律이란 것을 말하였다. 運動은 陰陽으로 나뉘고 陰陽으로 結合되면서 五行이 制約하는 關係를 말하는 것이다. 합해서 말하면 五行은 陽動陰靜의 常理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太極之理는 天地間에 存在하지 않는 곳이 없고 萬物中에 그러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天地에 있어서는 太極으로 統體할 수 있고 萬物中에도 모두 太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大氣中에 있는 것도 萬物中의 하나이니 또한 이러한 運動變化規律을 갖추고 있다(太極之理). 太極之理를 理解할 目的으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規律에 順應할 것을 提示했다. 가령 사람의 生活調節方面에 있어서의 모든 行動이 太過거나 不及하지 않도록하면 사람의 一動一靜이 모두 中節을 필요로 한다. 道家에서 주장하는 '淸淡虛無'나 '節制嗜欲' 등의 養生之道는 모두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다. '理氣之說'은 一面으로는 消極的인

17)孫一奎: 醫旨緒余, 中國醫學大系 34卷, 서울, 麗江出版社, 1984, p.1084.

面도 있지만 一面으로는 科學的인 面도 있어서 이러한 科學的인 部分과 醫學理論이 서로 矛盾되지 않아서 朱丹溪는 太極學說을 根據로 醫學中에 ‘陽常有餘陰常不足論’과 ‘相火論’ 등의 學術觀點을 주장할 수 있었고, 孫一奎의 ‘命門非水非火說’과 ‘二腎皆爲水臟說’ 등 內景藏象研究에 있어서도 太極學說이 중요한 理論根據가 될 수 있었다.

孫一奎는 《不知易者不足以言太醫論》中에 중요한 보충설명을 하여 “天地間非氣不運 非理不學 理氣相合而不相離者也. 何也? 陰陽 氣也. 一氣屈伸而爲陰陽動靜 理也. 理者 太極也 本然之妙也. 所以紀綱造化根柢人物流行古今 不言之蘊也 是故在造化則有消息 盈虛; 在人身則 有虛實順逆. 有消息盈虛則有範圍之道 有虛實逆順則有調劑之宜.”<sup>18)</sup>라고 말하였다.

孫一奎는 ‘氣’가 天地間 萬物運動의 物質的 基礎이고 ‘理’는 萬物運動의 規律이어서 “理氣相合而不相離者也.”라고 하였다. 孫一奎가 여전히 ‘理’의 存在를 承認하고 있지만 ‘非氣不運’을 強調함으로써 실지로는 ‘理’의 타고난 存在를 否認하여 결코 ‘理’가 萬物의 運動變化를 主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議論은 그 當時 哲學界에 存在했던 反唯心論의 思潮를 反映한 것으로 이러한 思潮는 교묘한 方法으로 醫學理論의 發展을 促進하였으며 그것은 孫一奎의 ‘天人合一’과 人身內景에 대한 인식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孫一奎는 理學研究를 重視하였지만 醫學에 運用된 理學自體는 儒·釋·道의 三敎가 合一된 產物이었다. 孫一奎는 太極之說이 매우 奧妙하고 複雜한 것이라고 인식하였고, 그것은 매우 긴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즉, “包犧氏畫之 文王象之 姬公爻之 尼文贊而翼之”<sup>19)</sup>하여 네 聖人(伏羲, 周文王, 周公, 孔子)의 손을 거침으로써 차츰차츰 완전해졌으니 그 精髓는 儒家의 經典인 《易經》에 구현되었고, 醫學書籍인 《靈樞》·《素問》·《難經》도 모두 《易經》의 理致에 起源하고 있다. 그리하여

“其書有二 而理無異也”<sup>20)</sup>하며 “《易》以道陰陽 而《素問》而《靈樞》而《難經》 皆非外陰陽而爲敎也. 《易》理明則可以範圍天地 曲成民物 通知乎晝夜 《易》《素》《難經》明 則可以節宣化機 拯理民物 調變札瘥疢癘而登太和. 古深於《易》者 必善於醫 精於醫者 必由通於《易》”<sup>21)</sup>이라 하였다. 그는 結論적으로 “不知《易》者不足以言太醫”<sup>22)</sup>라고 하였다. 孫一奎는 儒理를 崇尚했을뿐만 아니라 佛·道 二敎의 理論도 重視하여서 “醫寄生死之關 非知性命者 不足與有言也. 儒之窮理盡性以至於命 固當取以折衷 而老氏性命兼修 釋氏明心見性 道理自可參觀 故兼采二氏爲翼. 夫知三敎之所以者 於醫學思過半矣.”<sup>23)</sup>라 하였다.

孫一奎가 《赤水玄珠》를 지으면서 참고한 책의 목록은 265種에 달하며, 여기에는 醫學書籍을 제외하고도 儒·釋·道 三敎의 書籍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그는 釋·道의 理論을 兼采했으며 실지 道敎가 그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큰데, 이는 그 당시의 社會風潮와 관계가 깊다. 그가 살던 時代는 위로는 王으로부터 아래로 百姓에 이르기까지 道敎를 배척하지 못할만큼 篤實하게 믿었던 時代여서 그가 自號를 生生子라고 한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였다. 여기에 두 가지의 독특한 예가 그 문제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孫一奎가 일찍이 括蒼에서 神仙을 만나 禁方을 傳授받았음으로 해서 醫學을 공부할 포부를 정했다는 것이다.<sup>24)</sup> 또 하나는 孫一奎가 醫學的인 面에서 數十年間의 노력으로 이룬 成就를 책으로 만들고 書名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의외에 ‘挾仙術’의 方事에게 書名을 지어줄 것을 請하여서 方事が “純陽子命曰《赤水玄珠》”라고 詐稱한 것이다.<sup>25)</sup> 孫一奎는 이를 흔쾌히 따랐는데 道敎의 영

20)孫一奎：醫旨緒余，中國醫學大系 34卷，서울，麗江出版社，1987，p.1082.

21)孫一奎：醫旨緒余，中國醫學大系 34卷，서울，麗江出版社，1987，p.1082.

22)孫一奎：醫旨緒余，中國醫學大系 34卷，서울，麗江出版社，1987，p.1082.

23)孫一奎 著，赤水玄珠，서울，醫聖堂，1993，p.17.

24)孫一奎 著，赤水玄珠，서울，醫聖堂，1993，p.13.

25)孫一奎 著，赤水玄珠，서울，醫聖堂，1993，p.3.

18)孫一奎：醫旨緒余，中國醫學大系 34卷，서울，麗江出版社，1984，pp.1081~1082.

19)孫一奎：醫旨緒余，中國醫學大系 34卷，서울，麗江出版社，1987，p.1082.

항은 그의 醫學著作中에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뒤섞이게 했다. 예를 들면 《赤水玄珠·虛怯虛損勞瘵門》에 기록된 '方外還丹'과 '還丹秘要論'과 '紅鉛'과 '梅子' 등을 취급한 방법들은 實은 道家가 사람들을 眩惑하기 위해 사용했던 잘못된 議論들이었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는 이러한 說들에 대해 “傳講以人補人采煉之法 殊非正道”라고 비판하였고 또 “蓋一奎以醫術遊公卿間 不免以是投其所好 遂爲全書之大瑕.”라고 분석하였다. 《赤水玄珠》에 이와같은 흠이 있다는 것은 萬古의 遺憾이다.

2) 《靈》·《素》를 基本으로 해서 衆長을 博採함.

孫一奎가 일찍이 “脫非生平融通《素》·《難》·《本草》·仲景·潔古·守眞·東垣·丹溪諸方 不可以語此秘密. 醫淡何容易也!”<sup>26)</sup>라고 感慨하여 말한 것으로 보아 그가 學術上 상당한 경지에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孫一奎는 學問을 하는데 있어서 《靈樞》와 《素問》을 起源으로 삼았다. 《赤水玄珠》의 體制를 보면 全書를 70餘門으로 나누고 每門·每證에 《內經》을 근거로 한 經文을 반드시 첫머리에 두었다. 辨證에 있어서도 원래 《內經》에 篇目이 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篇目を 따랐다. 더욱 분명한 것은 이러한 體制가 반드시 《靈樞》와 《素問》의 意味에 符合한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의 醫師들이 《靈樞》를 “略不涉目”하고 “顧棄而不讀”하는데 有感을 가지고 《醫旨緒余》에 《靈樞》數篇의 主要內容과 12經絡藏象見證(任脈과 督脈을 포함하여)을 記錄하여 後學들에게 提示하면서 《靈樞》를 힘써 공부하지 않는 이들이 “何稱醫哉.”라고 하였다.

그는 《難經》을 매우 重視하였다. 《醫旨緒余》에서는 《難經》의 經文에 대해 투철하게 闡發을 行하였는데 右腎·命門·三焦 等の 問題에 있어서는 더욱 重要하게 發揮되었다. 그러나 그 闡述과 發揮의 原則은 많은 부분을 《內經》의 經義에 기

초하고 있다. 그는 “《難經》 《靈》·《素》之翼也.”라고 보았다.

前賢들의 學術思想을 繼承하는 問題에 있어서 孫一奎는 매우 嚴肅하고 科學的인 態度를 가지고서 糾紛 一家의 主張을 局守하지 않고 門戶를 標榜하지도 않았다. 그는 衆家의 長點들을 모으기를 좋아했고 諸家의 偏頗의인 面을 盲從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와 師承關係에 있는 先輩들에게도 추호도 例外가 되지 않았다. 朱丹溪를 可히 그의 宗師로 看做하는데 그는 朱丹溪의 學術思想에서 매우 큰 影響을 받고 朱丹溪에 대해서는 《赤水玄珠》에 인용된 朱丹溪의 醫論들은 모두 지극한 이치라고 받들었다. 그러나 그는 丹溪의 ‘陽常有餘陰常不足論’과 ‘相火論’中的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도리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에 관해서는 여전히 태연히 入論을 하고 게다가 論駁까지 하였다. 그가 그렇게 意思를 表明했지만 속마음은 “愚故愿爲丹溪之忠臣 不憚辨駁者 正欲戊丹溪惠後之心 又何暇計僭逾之罪哉.”<sup>27)</sup>라고 하였다.

그는 前賢들의 長點을 넓게 받아들여서 그들의 長點을 精確하게 인식하였다. 歷代로 醫學界에서는 어떤 先輩의 學術思想中 一面만을 強調하여 學術分派를 세웠고 이로인해 強調되지 않은 一面을 短點으로 삼아 비난하는 말들이 분분했다. 이러한 風潮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觀察方法은 자주 자기의 視野를 좁게 만들게 되며, 或은 歷史와 따로 떼어서 當事者가 살고 있던 時代背景과 당시 醫學界에 있어서의 偏頗의인 趨勢를 無視한 것이다. 孫一奎는 “醫以通變稱良 而執方則泥 故業醫者能因古人之法 而審其用法之時 其得古人入法之心矣. 不則窺其一斑襲議其偏長. 卽醫如張仲景·李東垣諸公 亦妄加譏貶也.”<sup>28)</sup>라고 하였다. 後世에 前賢의 ‘偏長’을 盲目的으로 信奉하는데서 야기된 惡果들에 대해서도 孫一奎는 자못 깊은 見解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든다면 後世에 丹溪學說의 影響을 받아 滋陰降火法을 濫用하게 된

27)孫一奎：醫旨緒余，中國醫學大系 34卷，서울，麗江出版社，1987，p.1120.

28)孫一奎：醫旨緒余，中國醫學大系 34卷，서울，麗江出版社，1987，p.1138.

26)孫一奎：醫旨緒余，中國醫學大系 34卷，서울，麗江出版社，1987，p.1137.



데 대해서 그는 “丹溪‘陽常有餘陰常不足論’蓋爲當時《局方》溫補之藥害人 故著此以救一時之弊”라 하여 後人들을 일깨운 것이다. 만약 病을 治療하려 더 나빠지는 경우로 例를 든다면 虛弱發熱을 陰虛火動이라 보고 陰虛陽虛와 脾胃의 強弱을 살피지 않고 滋陰降火法을 쓰는 것은 결코 丹溪의 本意가 아닌 것이다. 朱丹溪는 陰虛를 治療할 때 人蔘의 사용을 포기하지는 않았는데 王節齊의 代에 이르러서는 人蔘을 호랑이와 같다고 쓰기를 두려워 하였으니 이는 王節齊가 丹溪의 醫論에 짐착한 나머지 너무 偏頗의 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에 세상 醫師들이 모두 陰虛에는 절대 人蔘과 黃芪를 쓰지 않았고 汪石山은 ‘辨《明醫雜著》忌用蔘芪論’에서 그 릇됨을 꾸짖었으니 이는 當時의 弊端을 救하고자 한 것으로 丹溪가 溫補藥이 濫用되기 때문에 ‘陽常有餘陰常不足論’을 주장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당연히 汪石山이 虛勞를 治療할 때 人蔘 黃芪에 증했다고는 볼 수 없다.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孫一奎가 前賢의 學術成就에 대한 評價는 비교적 全般的이고 公正하여 ‘列張·劉·李·朱·滑六名師小傳’에서 그는 諸師들이 處한 서로 다른 社會環境을 根據로 그들이 貢獻했던 바에 대해 精確히 評價하였는데 그 目的是 “欲後人之仲景不徒以傷寒擅長；守眞不獨以治火要譽；戴人不當以攻擊蒙譏；東垣不專以內傷樹績；‘陽有餘陰不足’之譚不可以疵丹溪；而搜寧生之長技 亦將與諸公并稱不朽矣。”<sup>29)</sup>라 하였다.

孫一奎는 諸家の 長點은 즐겨 모았으나 門戶를 標榜하는 데는 반대하였는데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歷代의 學術精華를 包含하고 있지만 그는 別個의 學術波別에는 속해 있지 않았던 것이 實하다.

### 3) 內景을 明白히 하고 動氣를 重視함.

“유럽에서는 16世紀 以前까지만 해도 실제로 人體를 解剖해본 적이 거의 없으며 醫學의 解剖學도 대부분 古代의 開倫의 解剖學에 根據한 것이었고, 蓋倫의 解剖學도 動物解剖를 基礎로 한 것이었다.

同時에 人體解剖學도 醫學理論과 實踐過程中에 發揮된 역할은 극히 적다.”<sup>30)</sup> 韓醫學에서는 宋代에 《五臟圖》와 《存眞圖》라는 2部의 屍體解剖에 關된 圖記專門書籍이 있었으나 쉽게도 2部 모두 流失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다른 冊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보면 《存眞圖》의 作者는 楊介로 自序에서 “自喉咽以下 心肺肝脾胃之 關屬 小腸大腸要腎膀胱之營壘 其中經絡聯附 水穀泌別 精血運輸 源委流達 悉如古書 無所以者.”라고 하였다. 古代 醫家들이 解剖學을 研究했던 方法에서는 두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번째는 눈으로 본 實物을 《內經》과 《難經》의 기준으로 다루었으므로 비록 進步가 있긴 하였지만 《內經》과 《難經》의 內容을 考하여 貢獻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短點이다. 두 번째는 비록 藏象學說이라고는 하지만 臟器의 形象에만 局限되지 않고 그 機能과 相互關係란 側面에서 人體의 生命活動現狀과 結合시켜 추측하였으니 이러한 것들은 醫療實踐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長點이다.

孫一奎가 살았던 明代의 萬歷年間에는 西洋解剖學의 翻譯本인 《人身概說》이 明나라에서 刊行되어 紹介되었으나 醫學界에 미친 影響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다. 그 原因은 아마도 위에서 서술한 두 가지 面 때문이었을 것이다.

孫一奎는 人身內景의 研究를 대단히 重視하였다. 그는 일찍이 “醫要先識人身內景 臟腑形質 手足經上下 宗氣·營氣·衛氣 呼吸出納 三焦始終 及各經表裏·陰陽·金·木·水·火·土 部位·配合·命名之義 上下不得錯綜 一經不得兩配.”<sup>31)</sup>라고 주장하면서 “內景不明 群書不究 局局然守草根·樹皮之末方”<sup>32)</sup>의 舍本求末의 現상에 대해 非평했다. 그가 人身의 內景에 대한 認識과 研究했던 方法은 《周易》·《內經》·《洪範》·《黃庭經》·《性理大典》 등의 諸書를 기준으로하였는데 이와같이 빠짐없이 연구하였기 때문에 그의 人身內景에 대한 認識은 비교적 完全하였다. 《醫旨緒余》에는 ‘人身內景說’이 있

30)中國醫學史

31)孫一奎 著, 赤水玄珠, 서울, 醫聖堂, 1993, p.17.

32)孫一奎 著, 赤水玄珠, 서울, 醫聖堂, 1993, p.17.

29)孫一奎：醫旨緒余，中國醫學大系 34卷，서울，麗江出版社，1987，p.1079.

다. 그 설명이詳細하고 내용이具體的인데 그大要를 概括하면 다음과 같다.

咽喉二竅中 喉는 앞에 있고 咽은 뒤에 있다.

咽은 地氣에 應하고 水穀之道路의 시작이다. 胃管을 通하여 아래로 胃와 연결되어 있고 水穀이 胃中에서 腐熟하고 나서 그 精悍한 氣運은 胃의 上口로부터 賁門을 경과하여 脾에 전달된다. 脾氣는 散精하여 精悍한 氣運을 心으로 되돌려보내고 心氣淫精於脈하며 脈氣는 流經하여 肺로 轉歸한다. 肺는 百脈을 총괄하여 皮毛와 臟腑로 布精한다. 그 썩거기는 胃下口로부터 幽門을 통과해 小腸으로 전달된다. 다시 關門을 통과하면서 泌別清濁한 後 물은 膀胱으로 滲灌되고 濁氣는 大腸으로 들어간다.

喉는 天氣에 應하고 出納을 主管하며 呼吸을 하는 길이다. 肺에 通하는데 肺는 아래로는 竅가 없으면서 空을 가지고 있다. 行列分布諸臟清濁之氣, 以爲氣管.

心은 心包絡이 周圍를 保護하고 있고 膈膜이 덮고 있어서 濁氣가 上薰할 수 없으며 邪氣가 內犯할 수 없다. 두 군데로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는 肺에 通해 있고 다른 하나는 腎에 通해 있다.

心包絡은 心上漫脂로 실과 같은 細筋이 心臟과 肺臟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心包絡은 膈中으로부터 散布하며 三焦와 絡繞하며 三焦는 그 氣運을 十二經絡에 通하게 한다.

肝은 心肺의 아랫쪽 左側肋骨 밑에 연결되어 있고, 膽은 肝의 短葉사이에 있다.

孫一奎가 內景을 咽喉二竅와 五臟六腑가 모두 連繫되어 있음을 條理가 井沿하게 說明하고 있으며 人體內部的 動態變化를 描述함에 있어서 간단히 臟腑配列만을 說明하지 않고 ‘藏象學說’의 精髓를 구현했다는 것에 貴한 가치가 있다. 注意를 기울여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原文中에 記述된 五色相合이 臨床實踐과 關聯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만일 孫氏의 醫案을 본다면 人身內景이 醫療實踐上에 중요한 指導作用을 가지고 있음을 體得할 수 있다는 데 있다.

孫一奎는 氣化를 가장 重要視하여 “人與天地生生不息者 蓋一氣之流行欠.”<sup>33)</sup>이라 보고 孫一奎는

宗氣營氣衛氣를 考證하는데 있어서 《靈樞》와 《素問》을 기본으로 하면서 馬蒔의 《難經正義》를 칭찬하였다. 呼吸에 대해 말하면서도 《難經》과 《靈樞》를 기본으로하여 “呼吸者根於原氣 不可須臾離也.”<sup>34)</sup>라고 하였다. 右腎·命門·三焦에 관한 그의 탁월한 견해에 대한 關鍵은 사람의 生生不息誌機와 兩腎間의 一點眞氣(動氣, 原氣)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어서 그가 “原氣即太極之本體”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孫一奎는 人體의 氣化를 重視하였는데 臨床實踐過程에서도 이에 대해 충분한 체험을 하였다. 그는 下焦虛寒으로 小便이 不利하게 되고 濕氣가 膈里膜外에 壅遏하여 점차 腫滿하게 되어 鼓脹이 된다고 보고 ‘壯原湯’을 만들어 썼다. 腎消는 腰腎虛冷으로 穀氣를 蒸化하지 못하므로 다 小便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腎氣丸에 五味子·鹿角膠·益智仁 등을 加하여 主治하였다. 그는 赤白痢도 脾經寒濕으로 因한 것으로 보고 附子理中湯으로 主治하여 速效를 보았다. 그는 비록 治療中에 滋陰降火하는 藥을 사용하더라도 氣化宣行을 보호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것들은 孫一奎가 動氣를 重視했음을 反映한 것이다.

4) 明證을 精思하고 古方에 집착하지 않았음.

孫一奎는 “醫難於認證 不難於用藥”이라고 보았으므로 臨床에서는 ‘明證’을 특히 強調하였다. ‘明證’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明病이고 또 하나는 明證이다.

孫一奎는 古籍中에 病名이 混沌되어 錯亂되어 있는 것을 精確하게 보고 여러종류의 病名에 대한 研究를 進行하면서 여기에 區分과 訂定을 하고 前賢名家의 意見에 局限되지 않고 그 중에는 仲景과 丹溪 등이 주장한 것의 矛盾에 관한 것이 많았다. 그는 病名을 분석하는 것으로 그 病의 辨治와 關連되었던 것이 많았던 것이 特徵이어서 臨床實踐에 있어서 자못 큰 指導作用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예로써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33)孫一奎：醫旨緒余，中國醫學大系 34卷，서울，麗江出版社，1987，p.1104.

34)孫一奎：醫旨緒余，中國醫學大系 34卷，서울，麗江出版社，1987，p.1101.

《醫旨緒余》辨咳與嗽：咳는 無痰而有聲한 것으로 肺氣가 傷해서 不清한 것이고, 嗽는 有痰而無聲한 것으로 脾虛動하여 痰을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咳는 肺를 兼해서 治療해야 하며 清痰·降火·流濕·潤燥·補腎·疏風 等の 治法도 兼해야 하지만 但主嗽多咳少之證. 喘嗽와 痰喘은 兼痰兼咳한 것으로 雜症이 관계하는 까닭에 汗吐·下의 다른 治法을 써야 하고, 喘逆氣急과 氣喘은 本臟氣가 虛하거나 陰虛火動으로 因한 것이기 때문에 補法과 斂法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辨顛·癩·狂：顛은 或愚 或歌 或笑 或悲 或泣하며 言語가 錯亂하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猖狂者를 狂이라고 하는데 그 症은 “志願高大而不遂欲成”한데서 原因이 되고 俗稱 ‘心風’이라고도 한다. 癩은 時發時止하여 發作하면 昏憤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甚하면 瘦癯抽掣하게 되거나 口眼歪斜가 되거나 口中에서 六畜의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깨어난 後에는 涎沫을 吐하는 것으로 대개 痰火로 인해 發生하는 것이다.

孫一奎는 《醫旨緒余》中에서 噎膈과 翻胃, 嘔血과 咳血, 哮와 喘, 泄과 瀉, 鼻衄와 鼻淵, 痿症과 中風 等の 病에 관해 或은 비교하여서 말하고 或은 並列하여 論하기도하여 古書中에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補充한 것이 많았다.

孫一奎가 強調한 ‘明證’은 病名의 規範에 注意한 것 外에도 辨證을 重視하여서 그는 “凡證不拘大小輕重 俱有寒熱虛實表裏氣血八個字 苟能於此八個字認得真切 豈必無古方可循?”<sup>35)</sup>이라 보고 “審證猶審敵 知己知彼 百戰百勝矣.”<sup>36)</sup>라하여 그의 《赤水玄珠》를 ‘明證爲主’라고 表明하였다.

孫一奎가 治病하여 그 治療效果가 뛰어났던 것은 “此八個字認得真切”함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三吳治驗》中 맨 처음에 記錄된 醫案은 이것의 매우 典型的인 例이다. 같은 나이에, 같은 時期에, 같은 病에 걸린 두 사람을 專門醫師가 治療하면 할수록 더 病은 危重해졌다. 孫一奎가 한

사람은 補하고 한 사람은 瀉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 낫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다. 그는 “此陰陽虛實之辨也”라 하면서 한 사람은 厥陰肝火가 熾盛하여 마땅히 瀉해야 하므로 瀉肝湯과 當歸龍薈丸으로 瀉하였고, 또 한 사람은 虛한데다가 怒氣가 너무 急激하여 온 것이니 당연히 먼저 清肝散을 쓰고 나서 人蔘·白茯苓·熟地黃·枸杞子·桂心·牛膝·補骨脂·白茯苓·牡丹皮 等으로 계속해서 補하여서 나은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同病異治의 根據를 볼 수 있으니, 이는 같은 病이라도 症狀이 다르면 먼저 반드시 明證을 한 後에야 그 效果가 남을 말한 것이다.

孫一奎의 《醫旨緒余》中에 있는 ‘不執方說’에서는 用藥을 兵法에 比喻하여 그 用兵에 있어서 “部伍整肅 坐作進退 刺殺攻擊 一定而不亂者”<sup>37)</sup>在于 循用兵而行, 至于知己知彼, 置伏投奇, 臨變不測, 全在于 兵法運用的活靈. 그러므로 法을 버리지 말고 臨機應變하는 것이 중요하다. 用藥에 있어서 古籍에 記錄된 處方의 君臣佐使와 藥의 性味와 劑型變化는 모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 臨證運用到 있어서 原方에 구애받아서 안된다. 그러므로 “按圖用法而不達變者 以卒與敵 執方治病而不察因者 未有能生人者也.”<sup>38)</sup>라고 하였다.

孫一奎는 “立法處方不過酌病機之詳確 審經絡之虛實 察藥性之宜悖 明氣味之走守 合色脈 衍天和 調變陰陽 參相造化而一理貫之 理融則識真 識真則氣順 自然應變不謬. 方自吾心出 病可去而功可成 以成功而名方 誰曰不可.”<sup>39)</sup>라고 하였다. 그는 處方을 立法하는 過程中에서 ‘明證’과 ‘明藥’을 重視하였고 臨床治療에 있어서 理·法·方·藥의 一貫性이 重要하다고 強調하였다. 그는 또 韓飛霞의 ‘藥性裁成’과 王好古의 ‘五臟苦欲補瀉’와 李東垣의 ‘藥類法象’을 重視하여 이를 채택하여 《醫旨緒余》에서 소개하였다.

37)孫一奎：醫旨緒余，中國醫學大系 34卷，서울，麗江出版社，1987，p.1137.

38)孫一奎：醫旨緒余，中國醫學大系 34卷，서울，麗江出版社，1987，p.1137.

39)孫一奎：醫旨緒余，中國醫學大系 34卷，서울，麗江出版社，1987，p.1138.

35)孫一奎 著，赤水玄珠，서울，醫聖堂，1993，p.16.

36)孫一奎 著，赤水玄珠，서울，醫聖堂，1993，p.16.

## 4. 學問態度와 思考方式

孫一奎가 '舍業從醫'하고 著書를 통해 그의 주장을 내세우기까지의 30餘年間 그의 學問을 했던 過程을 두 段階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段階는 索居苦讀하던 過程이었고, 두 번째 段階는 廣詢博采하고 反復實踐하던 過程이다. 그의 著述을 통해 보면 그가 學問하던 方法에 몇 個 特徵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 苦讀·廣讀·善讀함.

史嵩이 序한 《靈樞》에서는 “夫爲醫者在讀書讀而不能爲醫者有矣 未有不讀而能爲醫者也.”라고 하였다. 孫一奎가 자못 그러하여 그가 醫學(或者是接觸醫學이라고도 한다)공부를 시작했던 것은 括蒼에 있는 兄을 訪問하고서 “遇異人而禁方相授”하고서인데 自身の 正確한 臨床驗證을 거치고서 더욱 좋아졌는데 이렇게 醫學을 시작한게기가 매우 흥미롭다. 古今에 이런 類의 傳說이 매우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異人으로부터 禁方을 傳授받은 것이 名醫의 關鍵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社會的으로는 '異人傳授'라는 幻想을 품고 있던 사람이 우연히 秘方을 얻고서 半平生 醫師行勢를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 실지로 이러한 것은 자기를 欺瞞하는 情性心理인데 學問을 하는 基本은 勤勉이다. 孫一奎는 이 점에 대한 명석한 인식을 가지고서 《赤水玄珠》를 세상에 傳하게 되었다. 그가 우연히 몇 개의 秘方을 얻었다는 것은 단지 興味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고,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得을 본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醫學을 공부하기 위해 마음잡은 하나의 原因이었을 뿐이다. 그는 冊을 읽지 않고서는 良醫가 될 수 없으며 異人傳授 따위는 결코 正道가 아니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의 著作中 括創異人의 禁方이 그의 學術思想과 臨床實踐에 있어서 도움이 된 것을 조금도 발견할 수 없으며, 實際上에 있어서는 그가 苦讀·廣讀·善讀과 多方面의 知識을 蓄積하고서야 비로소 學術成就上的 健實한 基礎를 다지게 된 것이다.

孫一奎가 醫學을 처음 공부한 3年동안에는 刻苦의 勞力으로 醫籍을 誦讀하고서야 學術思想의 範

圍가 넓어졌는데 그는 스스로 “上自《靈樞》《素》《難》 下及古今名家 靡不翻閱”이라 말하여서 처음 醫師의 길을 가려면 가장 먼저 그 源流를 밝히고자 하여야 하며, 刻苦의 노력으로 冊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目的 또한 명확하여야만 한다고 하였다. 바로 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가 後에 廣詢博采하였던 條件까지 있어서 그의 學業이 進步하였음은 당연한 結果였던 것이다. 그 외에 그의 讀書는 醫籍에만 局限되지 않고 儒教·佛敎·道敎의 3敎 經典에까지 미치었으니 醫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는 3敎의 義理를 融匯하는 것이 醫學理論의 理解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後에 그의 醫學理論上的 基礎가 되었으며 3敎의 經典中 精華部分은 확실히 吸收하였다. 그가 《赤水玄珠》를 著述할 때 引用한 書目을 보면 醫學書籍을 除外하고서도 儒·釋·道 3敎의 書籍이 90餘種에나 달했다.

그는 일찍이 자기가 讀書한 것을 “匪徒搜獵古人之言詮 務因言詮融洽古人之神髓.”라고 설명하였다.

2) 學問하는데 常師가 없이 좋은 것만을 택해 좇음.

광순박체는 孫一奎가 학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의 하나였다. 그는 첫 번째로 異인에게서 禁方을 傳授받고 두 번째로 醫籍을 熟讀하였으며 세 번째로 名醫(黃古潭)로부터 師傳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方今明盛多賢 宇宙寥闊 四海九州之士持昭曠而暫成法者 詎無其人 余何卑卑而丘里自隘.”라 보았다. 이에 出而廣詢하기로 마음을 정하고는 “自新都游彭蠡 歷廬浮沅湘 探冥秦淮 鉤奇於越 卒至淹迹於三吳.”하여 그의 발자취는 江南에 치우쳐 있으면서 醫術을 行하고 識者에게서 探求하여 醫理에 막힘이 없었다. 당시는 바로 明代 中葉으로 醫學은 金元四大家의 餘緒를 이어받아 學術雰圍氣가 대단히 活潑하였고 醫家의 輩出과 理論과 實踐의 發展이 매우 많았다. 孫一奎가 스승을 구하여 賢人을 訪問했던 行爲는 그의 學業이 長足の 發展을 하게된데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孫一奎는 厚古薄今하는 思考의 束縛에서 벗어나서 博采하는 過程中에 眞僞를 識別하려는 까닭에 눈부신 成就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

와같이 부지런히 30年間을 追求하여 자기의 識見을 넓혔으며 經驗이 豊富해져서 理論上으로는 '鏡實於中'하고 實踐上으로는 '投劑輒效'의 境地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學問하는 方法은 오늘날에도 가히 본받을 만하며 이미 經驗上으로 一定한 成就를 얻은 後에 충분히 겸허한 마음으로 남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始終을 堅持한 것에 있어서는 더욱 貴하다 할 수 있겠다.

3) 實踐을 重視하고 忍耐力을 가지고 醫術을 繼續함.

孫一奎가 括創에서 方書를 傳해받고서 臨床實踐을 通해 약간의 經驗을 쌓은 後 黃古潭先生에게서 醫學을 배우고서는 늘 臨證을 할 때마다 망설여지는 것은 가며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했다. 《醫旨緒余》中에는 2案에 대한 기록이 있다. 하나는 孫一奎의 동생이 길을 가다 熱을 받은데다가 過勞로 갑자기 左腦痛을 앓았다. 그 곳의 皮膚가 紅色이 되어 있었고 水疱瘡가 생겨나서 醫師들이 肝經鬱火라하여 瀉肝之劑를 服用시켰더니 그 痛症이 더하였다. 이에 孫一奎는 “心甚不憚 乃再歸以詢先師黃古潭先生”하였다. 先生은 醫理를 밝혀 苦寒한 藥을 써서 燥해지는 弊端을 막고 순전히 甘寒한 藥物을 使用하라 하여서 瓜蒌를 重用하고 粉草와 紅花를 加해서 썼더니 1劑에 病이 모두 나았다.<sup>40)</sup> 또 다른 하나는 한 婦人이 情志不舒하여 閉經된지 3個月이 되어 腹痛과 惡心을 앓았다. 모든 醫師들이 이것은 妊娠을 한 것이라고하였으나 孫一奎가 脈을 보니 脈이 澁하여 그 만이 '鬱病'이라 하고 二陳湯에 理氣活血之劑를 加하여 투여하였다. 投藥하면 그 때는 好轉되다가도 藥을 中斷하면 다시 痛症이 나타나길 약 1個月을 治療하였는데 根治가 되지 않았다. 그는 脈案을 가지고 黃先生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더니 스승은 鬱病이라 하면서 降下藥을 쓰지말고 黃芪柴胡 등의 藥劑를 써서 氣運을 升케하라 했는데 과연 2劑를 服用시켰더니 痛症이 멎고 嘔吐가 그쳤다.

孫一奎는 스승에게서 받은 敎訓으로 '木鬱達之'에 대해 進一步한 體驗을 할 수 있게 되었고 《醫旨緒余》中에 '論五鬱'篇을 지어 《內經》의 旨意를 자신의 經驗을 通해 闡發하였다.

이를 通해서 孫一奎가 臨床實踐中에 學習한 內容은 대단히 現實인 것으로 疑心이 나면 반드시 究究不捨하여 疑心을 풀어야만 했음을 알 수 있다. 醫術을 行한지 數十年後에는 “至臨證 務虛心 查受病之人 始敢投劑”하게 되었다.

## V. 結 論

明代 溫補學派 醫家인 孫一奎에 대해 研究하여 얻은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孫一奎는 明代 萬曆嘉靖年間(1522~1619年)에 生活한 것으로 보이고, 그의 著書로는 '明證'을 爲 主로하여 '表裏寒熱虛實氣血'의 8個辨證原則을 세운《赤水玄珠》와 醫論專輯이라 할 수 있는《醫旨緒余》와 그의 醫案을 記錄한 《孫氏醫案》이 있다.

2. 孫一奎는 朱丹溪의 再轉弟子인 汪石山으로부터 醫學을 배운 黃古潭에게 醫學을 공부하여 丹溪學派로 分類할수도 있겠지만 門戶에 구애받지 않고 丹溪의 '滋陰降火法'에 대해서도 비판한 것으로 보아 순수한 丹溪學派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가 丹溪로부터 影響을 많이 받았음은 分명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는 儒學을 崇尚하여 醫學理論에 있어서도 太極說을 根據로 '命門非水非火說'과 '二腎皆爲水臟說' 등의 內景藏象을 연구하였다. 그는 '氣'가 天地萬物의 物質의 基礎이고 '理'는 萬物運動의 規律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內經》과 《難經》을 重視하면서 그 以後의 醫家들이 주장한 바와 책들을 모두 섭렵하여 그 중의 長點만을 취하여서 그의 理學理論은 편벽된 부분이 없었다. 아울러 그는 儒學뿐 아니라 道教와 佛敎에 이르기까지 醫學理論의 形成에 採用하였다.

4. 그는 內景을 重視하였고 이를 通해 三焦와 命門을 규정하려 노력하였으며 明證을 위주로하여

40)孫一奎：醫旨緒余，中國醫學大系 34卷，서울，麗江出版社，1987，pp.1126~1127.

古方に 집착하지 않았다.

### 參 考 文 獻

1. 魏子孝 編著, 倡命門太極設의 孫一奎,
2. 中國醫學大系 34卷, 서울, 麗江出版社, 1987.
3. 孫一奎 著, 赤水玄珠, 서울, 醫聖堂, 1993.
4. 朱彦修 選, 東垣十種醫書·格治餘論, 서울, 大星文化社, 1983.
5. 王洪圖 篇,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6. 裘沛然·丁光迪 主編,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7. 劉伯驥, 中國醫學史, 臺灣, 華岡出版部, 1974.
8. 蔡陸仙, 中國醫學匯海 卷8, 서울, 成輔社, 1976.